

海外 圖書館學科의 名稱現況

—美國을 中心으로—

李 斗 榮
(中央大 圖書館學科)

지금부터 100여년전인 1877년 Melvil Dewey가 美國 켈럼비아大學에 도서관학교를 세웠을 때의 학교명칭은 School of Library Economy였다. 이때 사용한 “Economy”란 용어는 지금의 概念으로 “Management”란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당시의 도서관학교는 주로 公共도서관에 부속되어 司書의 職業 훈련의인 性格을 띄고 있었다. 이후 도서관교육은 大學으로 옮겨졌고, 1940년 중반에 이르러 Denver大學을 始初로 중전의 학부단위의 도서관교육이 대학원의 석사과정으로 격상되었다. 1951년 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석사학위를 司書職의 최초의 학위로 규정짓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도서관교육은 1950년대 부터 번성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라는 그의 政治理念에 힘입어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도서관교육은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월남戰의 介入과 더불어 미국은 高等教育에 대한 不信과 懷疑에 빠지게 되었고, 70년대의 경제공황속에서 도서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서 오는 타격과 한편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급격한 기술향상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는 일이 도서관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Illinois대학에서 가진 “도서관학교 교과과정의 새로운 설계”에 관한 회의를 비롯하여, 1974년 A.K. Oller의 “Education for Librarianship: a new approach to the core”; 1975년의 Delphi연구조사; 1975년 L.E. Asheim의 “미국에 있어서의 도서관교육의 경향”; 1978년의 “전문적으로써의 司書” 등의 논문들은 미국의 도서관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대표적인 논문들이라 하겠다. 특히 1977년 Sarah R. Reed가 실시한 “향후 10년간의 도서관교육의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1)네트워크부문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과 (2)도서관의 업무처리와 정보서비스는 점차 자동화 될 것으로, 이에 대비하여 현재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전산화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 (3)경영인으로써의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교육의 교과과정에는 정보공학분야가 확대되어야 하며, 경영분야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1978년 미국도서관학교 협의회에서 발표된 조사연구에 따르면 (1)컴퓨터네트워크의 발전 (2)각 전문분야별 Central Data Storage의 개발 (3)국가규모의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4)실무에 진출한 기성 정보전문직들이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육을 받게 될 것 (5)미국 도서관의 90%가 20년 이내로 자동화된 네트워크 시스템에 가담하게 될 것— 이상 다섯가지 변화가 앞으로 미국의 도서관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와같이 도서관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안에 정보학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직업연구에 대한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정보업무와 관련된 직종의 종사자 수가 과거 어느때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 미국 Pittsburgh

대학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체, 기업체 정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정보전문직 수는 16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정보전문직은 취업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고 다양한 전문 직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들 164만명의 정보전문직을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면 컴퓨터분야가 42%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분야에 종사하는 수는 9%에 해당되고 있다. 또한 정보전문직과 사서와의 봉급관계를 비교하면 1979년 현재, 공공도서관 사서의 봉급 Median은 년 12,346불, 학교도서관이 13,528 불, 대학도서관이 12,315불기타 도서관이 13,379불에 비해 1979년 현재 공개계통의 정보전문직 봉급 Median은 27,000불, 미국정보학회 회원은 Median이 25,500불로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서는 같은 교육수준과 같은 경력을 갖고도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설상 가상으로 취업의 전망도 점점 어두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교육의 설계 속에는 무엇보다 Technology 부문이 교과과정에 크게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특수 주제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보전문직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정보전문직은 그 진출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하며 이들의 보수 역시 사서보다 훨씬 좋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서관학교는 도서관의 사서직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정보전문직의 배출을 목표로 한 폭넓은 교육이 바람직 하다.

한편 이와같은 미국 도서관교육의 추세는 최근 도서관학교의 명칭자체를 정보학 쪽으로 바꾸어 놓기에 이르렀다. 1962년, 1972년, 1982년까지 10년을 단위로 하여 미국 도서관학교 명칭의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미국 도서관학회가 인준한 학교만 대상으로 하였을——1962년 당시 32개의 학교명칭에 “정보”란 단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1972년에는 55개의 학교 가운데 9개 학교가 “정보학”이란 단어를 학교명칭에 포함하였다. 1982년에는 69개 학교 가운데 36개 학교가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Studies;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Management 등의 단어들을 학교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박사과정이 있는 학교는 21개 대학으로 이 가운데 14개 대학이 “정보학” 명칭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학”이란 명칭만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학이라고 해서 정보학 분야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78년 64개 도서관학교 가운데서 정보학분야의 과목을 전혀 가르치지 않은 학교는 1개 학교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78년 당시 64개 도서관학교에는 730명의 전임교수가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180명이 정보학 담당 교수였으며, 이름있는 학교가 주로 포함된 9개 학교에는 전체교수의 40%가 정보학 담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학회명칭의 변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83년 *Library Journal* 1월호에 Pittsburgh대학과 Rutgers대학의 도서관학교 명칭이 School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Library Studies로 바뀌질 것을 보고하고 있고, 1982년 *ASIS Bulletin* 10월호에는 미국의 Special Library Association이 Information Management Society로 개칭될 것이라는 것, 또 1983년 *Library Journal* 1월호에 Association of American Library School의 명칭이 곧 Associ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으로 개칭될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 있어서의 도서관교육의 방향이 정보학 분야로 옮겨가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고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도서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과 명칭에 있어서나 교과과정에 있어서나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할 줄 믿는다.

주: 지면관계로 본요약 문내의 註도 생략하였으니 해당부문의 인용자료가 필요하신분은 필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韓國圖書館學會 名稱改正案

孫 正 彪
(慶北大 圖書館學科)

소 위원회가 마련하여 본 이 개정안은 단순히 학회 명칭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학계의 숙원이었던 학과 명칭 개정과도 관련하여 다루어 보았다. 그러나 학과 명칭이란 그 학과의 특성과 교육 내용의 범위,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범위를 명칭에 가장 잘 나타내고 나아가 도서관학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學의 명칭도 가장 명백하게 대표하여 줄 수 있는 명칭의 모형을 찾고자 한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案으로 제시된 명칭의 선정은 지난 1차 세미나때 보고된 바 있는 외국의 현황 및 설문지 조사결과나 문헌가운데서 그 동안 거론되었거나 거론 될 가능성이 있는 명칭 16개를 놓고 상기와 같은 기준 아래 분석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표 참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 안 문헌정보학 (Biblioinformation Science 혹은 Library and Informatics)

이는 정필모 교수가 이미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고 서울 5개대학 교수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명칭으로,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결합시켜 놓은 명칭이라 하겠다. 다만 도

명 칭 군	선정된명칭안	학회조사결과 선호도
문헌정보학, 도서·정보학 또는 도서정보학, 정보·도서학 또는 정보도서학, 자료정보학, 정보자료학, 서지정보학	문헌정보학	84명(49%)
정보관리학, 정보경영학, 자료관리학, 문헌관리학, 문헌정보경영학 정보경제학	정보관리학 또는 정보경영학	31명(18%)
도서관·정보학 또는 도서관정보학, 정보·도서관학 또는 정보도서관학, 도서관·정보관리학 또는 도서관정보관리학	도서관·정보학	47명(27%)
정보과학 또는 정보학, 기타		9명(6%)
계 16개		171명(100%)